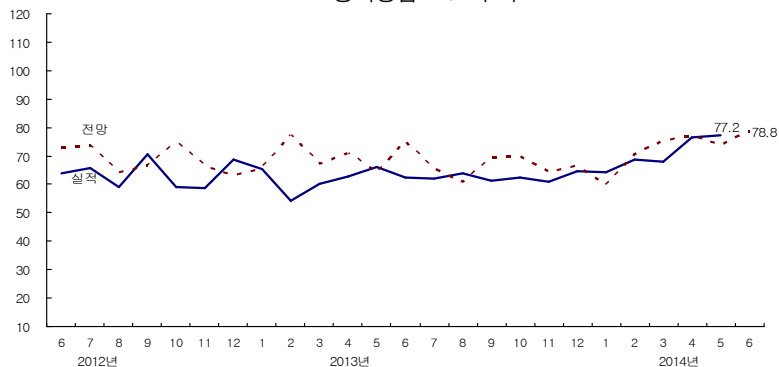


# 2014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5월 CBSI 0.7p 상승한 77.2 기록  
2개월 연속 상승, 4년 3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2014년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7p 상승한 77.2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4월에 전월비 8.6p 상승하면서 4년 2개월만에 최고치인 76.5를 기록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상당 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었음.
- 5월에도 CBSI는 전월비 매우 소폭(0.7p) 상승한 77.2를 기록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은 소폭이나마 추가적으로 개선됨.
- 이로써 CBSI는 2010년 2월 77.6을 기록한 이후 4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한 것을 볼 때 건설기업 체감경기 침체 수준 완화가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5월 CBSI 상승은 5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정책적 영향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통상적으로 발주물량 증가 등에 의해 지수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중견업체 지수는 소폭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0.6p 상승한 92.9를 기록함.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4년 1월 78.6을 기록한 이후 매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8p 하락한 74.1을 기록함. 4월에 전월비 큰 폭(15.2p)으로 상승한 후 통계적 조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체 지수는 전월비 3.7p 상승한 62.5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고,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60선을 넘었음. 전반적인 체감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최근 소규모 공사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총 합	62.1	64.0	61.2	62.3	60.9	64.5	64.3	68.9	67.9	76.5	77.2	73.7	78.8
규모별	대형	85.7	92.9	85.7	84.6	85.7	92.9	78.6	84.6	84.6	92.3	92.9	100.0
	중견	50.0	48.1	50.0	51.9	60.7	50.0	67.9	66.7	60.7	75.9	74.1	73.1
	중소	48.1	48.1	45.3	48.1	32.0	47.9	43.4	52.9	56.6	58.8	62.5	60.4
지역별	서울	68.7	70.9	73.1	71.2	74.2	73.2	71.6	73.8	70.4	87.5	85.1	93.3
	지방	51.9	53.3	39.3	49.0	41.1	51.6	52.8	61.7	64.3	66.0	65.7	57.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4년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1.6p 상승한 78.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그만큼 6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5월보다 좀더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6월 CBSI는 임시국회에서 임대소득 과세법안과 시장활성화 대책이 어떻게 입법화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5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2.4p 감소

한 85.1를 기록하였으며, 지방 업체도 0.3p 하락한 65.7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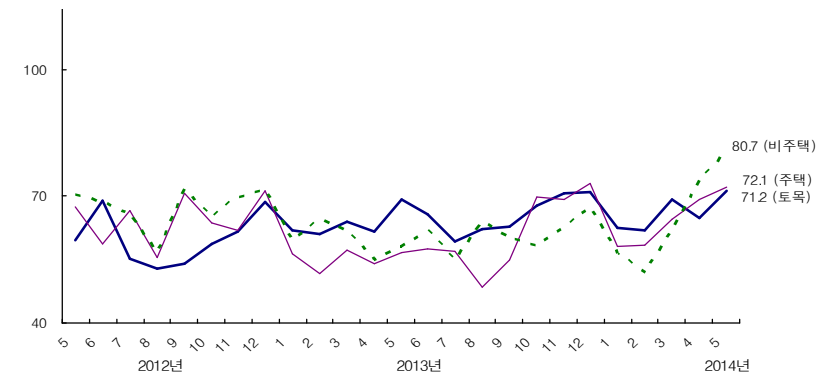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7.1p 증가한 87.5를 기록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5월에는 서울소재 중견업체의 부진으로 전월 대비 2.4p 하락한 85.1을 기록함.
-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4월 2년 4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인 66.0을 기록하였으나, 5월 들어 전월보다 소폭 0.3p 하락한 65.7를 기록,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임.

## 2014년 5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4.9p 상승한 79.7 기록

- 2014년 5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9p 상승해 3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80선에 근접한 79.7을 기록함.
  - 공사 물량 지수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10.1p, 4.2p 감소하여 58.4로 떨어진 이후 3월부터 반등함.
  - 3월과 4월 각각 전월 대비 8.2p씩 지수가 상승하여 4개월 만에 70선인 74.8을 기록하였으며, 5월에도 역시 전월 대비 4.9p 증가한 79.7로 80선에 근접함.
  - 비록 지수가 79.7로 기준선 100 미만으로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지만, 지수 79.7은 2010년 1월 80.5를 기록한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며, 5월 지수로는 지난 2009년 5월 91.4 이후 5년만에 최대치임.
  - 결국, 공사물량이 최근 4~5년 수준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정부 공공공사 물량이 최근 양호한 가운데, 민간 건축 물량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여겨짐.
- 공종별로 모든 공종이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 특히 비주택 물량지수의 증가가 두드러짐.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4월에 전월대비 4.5p하락한 64.7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5월에는 6.5p 상승한 71.2로 지난 2013년 12월 70.8 이후 5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하였으며, 지난 2011년 7월 77.6을 기록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3.0p 증가한 72.1을 기록함. 지난 1월 58.0 이후 지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해 5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2월 52.0을 기록한 이후 3월과 4월 각각 10.0p, 11.6p 의 증가함. 5월에도 전월 대비 7.1p 증가해 지수가 공중별로 가장 높은 80.7을 기록함. 이는 지난 2007년 4월 83.0 이후 7년 내 최대치로 정부청사 이전 공사의 영향과 함께 최근 경기회복으로 민간부분의 공사 물량 또한 다소 회복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중건과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동일하였는데, 대형업체가 전월 대비 15.4p 증가해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84.6으로 부진하였음. 5월 들어 전월 대비 15.4p 상승한 100.0을 기록함. 토목이 2.2p 상승한 71.4, 주택이 16.5p 상승한 85.7, 비주택이 14.8p 상승한 107.1로 비주택 물량 상승이 전체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중건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4월에 전월보다 23.1p나 증가한 76.7을 기록하였는데, 5월에는 이 반작용으로 전월 대비 소폭 1.7p 하락한 75.0을 기록함. 공중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8.3p, 7.3p 증가하여 지수가 개선된 반면, 주택이 15.3p 감소한 71.4로 전월보다 지수가 10p 이상 하락함.
-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1.2를 기록함. 공중별로 비주택이 전월보다 2.0p 하락하였으나, 토목과 주택이 각각 전월보다 9.6p, 8.0p 증가해 지수가 개선됨.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보다 8.8p 상승한 89.8을 기록해 지수가 개선된 반면, 지방은 3.0p 하락한 64.7을 기록해 지수가 악화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8.8p 상승한 89.8을 기록함. 지난 2010년 11월 95.2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0p 하락한 64.7을 기록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함.
- 2014년 6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5월보다 1.3p상승한 81.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상 5월보다 6월에 물량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공중별로 살펴보면, 주택이 가장 높은 72.3을 다음으로 토목이 70.0을, 마지막으로 비주택을 69.4로 전망됨.
  - 토목과 주택은 지수 수준이 5월과 비슷한데 반해, 비주택 물량이 5월보다 11.3p나 하락한 69.4로 전망한 것을 보면, 최근 회복세를 보인 비주택 물량이 6월 들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9.7	100.0	75.0	61.2	89.8	64.7
	전망	81.0	100.0	74.1	66.7	93.6	62.5
토목	실적	71.2	71.4	75.0	66.7	70.8	71.9
	전망	70.0	71.4	74.1	63.8	72.4	66.6
주택	실적	72.1	85.7	71.4	56.8	79.3	61.2
	전망	72.3	78.6	74.1	62.8	77.7	64.3
비주택	실적	80.7	107.1	75.0	56.3	91.1	65.7
	전망	69.4	78.6	63.0	66.0	70.2	68.2

주 : 실적은 2014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6월 예측지수임.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가장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양호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6, 100.7로 100 이상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가 아직 침체된 가운데 인력 및 자재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2.0, 83.1을 기록해 전월 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자재비 상황에는 여전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93.4, 75.2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6.3p 상승하여 201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3.4	114.3	85.7	77.6	102.3	80.0
		전망	95.6	121.4	85.2	77.1	106.3	79.7
	자금조달	실적	75.2	76.9	75.0	73.5	73.0	78.6
		전망	78.5	78.6	85.2	70.8	78.7	78.2
인력	수급	실적	102.6	114.3	107.1	83.7	110.5	91.0
		전망	107.0	114.3	114.8	89.6	116.0	93.8
	인건비	실적	92.0	100.0	100.0	73.5	99.9	80.2
		전망	89.9	92.9	100.0	75.0	97.0	79.7
자재	수급	실적	100.7	114.3	103.6	81.6	111.6	84.8
		전망	103.1	114.3	107.4	85.1	111.7	90.4
	비용	실적	83.1	92.3	89.3	65.3	89.2	74.1
		전망	84.3	92.3	88.9	69.6	96.8	66.2

주 : 실적은 2014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6월 예측지수임.